

시민수행처 '봉은선원' 개원

봉은사에...입회자격 · 묵언 · 포행등 엄격

11월24일 오후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25평 규모의 공간에서 40명 남짓한 불자들이 좌선삼매에 빠져있었다. 일제 묵언,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사리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이따금 새어나올 뿐이다. 인적 공간이 미려해 화제다. 봉은사(주지 원해)는 11월22일 주지 원해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선원 개원식을 가졌다. 봉은사는 90년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재가자들을 위한 선원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정규를 갖춘 공식 선원을 마련하게 됐다. 봉은사의 이번 선원 개원은 우선 조선시대 선종의 으뜸 수행도량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고 봉은사 고승들의 청정참선 기도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답을 놓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선원을 기반으로 한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강남 지역에 없었던 시민선방이 생김으로써 이 지역 선 수행 포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은선원은 다른 시민선방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봉은선원에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신분과 관계없이 입회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수행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선방에서의 수행경험이나 3박4일 이상의 사찰 수련 경험에 있는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되지만 출입은 매시 정시에만 허용되며, 입방한 후에는 묵언을 해야 한다. 방선(放禪·좌선수행을 쉬는 것)시간에는 대중과 같이 포행을 돌아야 하는 것도 독특하다. 사찰측에서 점심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발우공양을 하도록 정해놓았다. 봉은선원에는 현재 40명의 불자들이 입회해 있다. 그러나 개인 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입회 신청자가 8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봉은사는 모든 불자들이



○봉은선원은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으로 강남 지역 선 수행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은 11월22일 개원식 장면.
 ○봉은선원은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으로 강남 지역 선 수행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은 11월22일 개원식 장면.
 ○봉은선원은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으로 강남 지역 선 수행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진은 11월22일 개원식 장면.

뉴스 & 뉴스

"사미니강원 전형 통일"

사미니 승가대학의 입학 전형이 통일되고 학인 모집정원도 30명 이상 늘어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11월24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사미니 승가대학 학장 회의를 열고, 삼선승가대학을 제외한 동학사·봉은사·운문사 청암사 승가대학의 입학 전형일을 통일 12월 10일(2000년 1월16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사미니 승가대학의 수용시설의 한계로 매년 60명 이상이 강원도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모집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총화중 내년예산 96억원

총화중은 11월 24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44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2000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96억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단 원할 건립 △총화중 청사 대표자 명의를 현 총무원장으로 변경 △정년수련대회 △수련사내 '사회복지문화회관' 건립 등과 총단원할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ARS 개설(전화 700-1108)을 의결했다. 이경숙 기자

법타스님등 4명 방북

평화통일불교인협회 공동회장 법타스님(대구불교방송 사장)과 정인악이 사장(남양 대표이사) 신광식(방송총원 상임이사, 불교인문학회 회장) 김도현(생림중앙회회장)이 7일부터 14일까지 방북한다. 이에 앞서 법타스님은 11월26일 예비접촉을 위해 북경에 도착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초청으로 이뤄진 평북방북 대표단은 북 동포를 위해 모집한 옷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남북불교교류와 관련 다양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방북일정은 평북방북지원으로 사리원에 세워진 금강구수공장을 답사하고 광범사 보현사 용화사 등 유명사찰을 참배하고 신계사 등 고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위영란 기자

11일 종교언론인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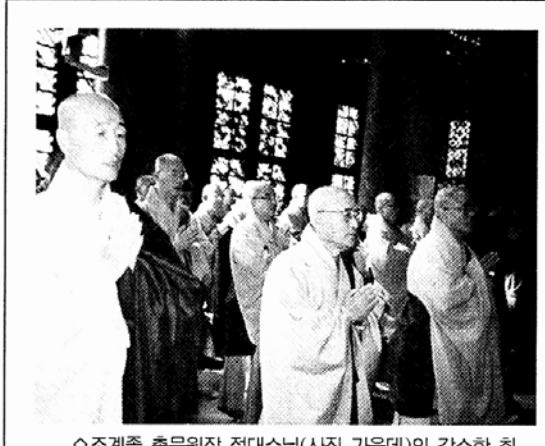
종교언론인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종교언론인협의회(KCRP)가 주관하는 제3회 종교언론인 심포지엄이 11일 오후 3시 서울 우이동 원불교 청수년 수련관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1세기 종교와 언론...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주표 목사가 기조발언에 나서며, 각 종교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다. 불교계에서는 법보신문 이학중 부장이 '불교와 언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종교언론인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 (02)736-2250 도팔선 기자

정대스님 간소한 취임식

고불식으로 대신

조계종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격식 깨뜨리기로 임무를 시작했다. 11월23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총무원장 정대스님, 교육원장 일면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30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꽃다발도 축하 손님도 없었다. 고불식으로 대신한 취임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소한 취임식은 "연초에 고산스님 취임식이 있었는

데, 1년에 두 번이나 취임식을 치를 수 없다"는 정대스님의 뜻에 따른 것 기복이나 어려운 종단살림에 주름살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취임식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의자 대여비와 거마비 식대 등 2천5백여만원. 총무원 은 취임식 비용에 상당하는 돈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위문 비용으로 보낼 예정이다. 기도하러 나온 신도 50여명은 이날 행사가 끝나기까지 내내 합장하며 조계종의 새로운 모습을 지켜봤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사진 가운데)의 간소한 취임식은 조계종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의미있는 행사로 관심을 끌었다.

"종단분규로 포교당운영 위축"

사설 사암·포교당 대표자회 토론회서 지적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종단분규로 포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의 지원은 커녕 행정서비스 제약만 있을 뿐이다" 전국 사설사암 및 포교당대표자회(준비실무 선일)는 11월19일 30여명의 스님과 3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대중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각 지역 대표자를 선정한 뒤 전국적인 공식단체를 구성기로 했다. 이날 대중토론회에서 참가스님들은 물질문명에 기반을 둔 승가의 전도된 가치관이야말로 무명의 산란 과도임을 직시하고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이어 포교당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교당의 금융지원력과 각종 포교정보 등 포교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들 스님들은 교구본사에 대한 견제력이 없을 만큼 권력화돼 있다며 획기적인 공개재정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선거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우 기자

사랑과 참회의 편지쓰기 운동

전불련, 1일부터 108일간

만다하여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전불련은 1차로 31일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 행사시 자체행사로 '남독행사와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행사가 끝난 뒤 편지모음집인 참회록을 발간할 계획이다. 참가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1872호)로 보내면 된다. 김원우 기자

"대통령부인 선교활동 안된다"

전국신도회 성명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1월25일 '영부인의 선교활동은 안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공인이나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를 편애하는 행위는 종교간의 위화감을 증진만 아니라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대통령 부인은 기독교 공식 행사에 간증 등 선교활동에 신중해야 하며, 아울러 불교 자선행사에도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신도회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대통령 부인의 편파적인 선교활동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에 도영스님

공로상에 백남석씨

김재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이 조계종 제11회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1월 23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포교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종정상'인 대상에 낙후된 전북지역 불교발전과 군포교·복지사업에 헌신해 온 도영스님을 선정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에는 1989년부터 육군훈련소 법회 활동 지원 및 법당 건립에 공헌한 황순영씨와 니화과 대불련 등 사찰청년회 지도법사로서 어린이, 청소년 및 재소자 포교에 전념한 포교사단 백남석 포교사가 각각 선정됐다.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에는 국제포교사의 양장은 회장(국제포교), 전국유전자발자회 박영준 회장(일반포교), 한전불자회 이순형씨(직장포교), 불자가수 김태근씨(예술문화포교), 파라마타청수년



협회 청주지부 최시선 지도교사(청소년포교), 부산·경남지역 어린이포교회 김광호 분과장(어린이포교), 한성대 이기향 교수(문화예술포교) 등이 각각 선정됐다. 포교원은 4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 김재경 기자

"초청법회 빙자 사기 조심하세요"

큰스님 초청법회를 빙자한 고가영주 판매등 사기극이 형태를 달리해 발생하고 있어 불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1월24일 서울 정동문화회관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 법승스님 초청 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경북 영주 풍기읍 조계종 신덕사 주지라고 밝힌 법승스님은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만다라 자기그릇을 제공하며, 최근 영주에 완공한 노인복지원 후원 명목으로 한달에 3만원씩 7달 간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입금하는 후원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영주시와 풍기읍에 확인한 결과 신덕사라는 사찰은 등록된 바도 없으며, 노인복지원을 지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덕사 사무장이라는 사람조차도 노인복지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건물을 건립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어 종단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개척의 상식화 생활화

「하나한」

진정한 새천년 비전! 궁극과 현실을 동시에!

기존심성, 영성, 의식기법 프로그램 중점인 김경민 삶의 지상과제인 유익한 동그리미길드이어 개명 기득인 중생, 불도인 이별, 그외는 어의주 모두 임박웃음

5박 6일만에 존재의 꽃을! 진정한 깨임과 놀이로!

1부 : 자아 감옥 벗고 지금여기 무한이기
 2부 : 대상과 하나되어 모두가 전체이기
 3부 : 현상 속 근원으로 삶을 안무하기

- 일시: 拜上 -

■일 시: 새해 1월부터 매 셋째주 월 15:00 ~ 토 11:00 (99.12월 셋째주 도음만 1/3씩 실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전화 0337-885-1011 / 팩스 885-1022 / H/P 016-206-1001
 ■참가비: 99(구)만원 (33만원선입금 나머지지불시 또는 매월 만원 회비 자동이체서)

99.12(8.15) 7:00-22:00 정선세계원(02-747-7033) 질의응답실(만원)

회당학회 재창립에 따른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당학회는 회당사상과 불교 및 밀교의 교리 수행·의식·체계에 대해 조사, 연구,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창립되었으나, 활발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학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회당학회를 대한불교 진각종단이 관리하는 학술단체로 면모를 일신하여, 불교학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한 폭넓은 계층을 수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다 음

●모집기간: 진기 53년 12월 11일(토)까지 ~ 1차 모집

●모집대상: 제한 없음

●접수방법: 학회 입회원서 1부 작성 (연회비 및 기사사항은 추후 통보함)

●접수 및 문의처: 136-13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 대한불교 진각종 교육원 회당학회 전화 02)913-0133, 0134 / 팩스 02)913-0135

제1회 육신보살 지장법사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지장사상의 전개와 지장 법사 그의 위대한 생애

신라의 왕손이면서 고향 땅에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장법사(694-794) 김교각! 24살 때 불법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안휘성 청양현 구화사에서 75년 동안 수도 정진, 구화산을 지장보살의 성지로 만들고 입적 후 3년만에 지장왕보살로 환생하여 현재에 와서도 추앙받고 있다. 이에 불교추수사에서는 한국문화협회의 후원을 받아 구화산 불교협회 및 명명사와 공동으로 교각 스님의 행적과 업적을 더듬어 보고, 각국에서 지장신앙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피는 제1회 지장법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이르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각 스님이라는 승명을 지장 스님으로 통일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한·중·일의 지장신앙의 흐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내용

●일시: 1999년 12월 12일 오전 9:00 ~ 오후 5시

●장소: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영명사 Tel. (0546)482-1390

●주관: 불교추수사 Tel. (02)733-8076, 8078

●후원: 한국차문화협회 지장보살 김교각 기념관 구화산불교협회 불교방송

기념강연: 김지장의 생애 / 인덕(구화산 기원사 방장) 주제발표: 지장 법사의 사상 / 오영환(동국대 교수) 동아시아의 지장사상과 신리원자 김지장 / 여승구(국민대 강사) 중국 불교에 미친 지장의 영향 / 사주전(안경사법대 교수) 중국 불교사에서 김지장의 위치 / 이희재(광주대 교수) 김지장의 차연구 / 황진행(안동농업대) 김지장 도상의 연원과 전개 / 김정희(원광대 교수) 한국지장 신앙의 특징 / 조영환(원광대 강사) 11세기 김지장신상에 대하여 / 조영복(동국대 교수) 중국 구화산의 지장 법사와 석대일 이순석의 비교 연구 / 최석환(불교추수법원) 당대(唐代) 구화산사와 김지장 / 오윤숙(성균관대 강사) 지장의 시문학 / 지존모(시인) 김지장의 채(채)관련 기록연구 / 이형석(한국차문화협회 이사) 김지장 스님께 올리는 편곡 대례 (한국차문화협회)